

Ethylene, 1350달러로 150달러 폭등

FOB Korea 1345-1355 달러 형성 ... 수요강세 및 MEG 상승세 영향

Ethylene 가격이 9월3일 FOB Korea 톤당 1345-1355달러로 150달러 폭등했다.

아시아 에틸렌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무역상 및 수요기업들의 수요강세로 인해 폭등세를 지속했는데, FOB Korea 톤당 1350달러에 거래가 성사된 이후 다시 10월하순 거래물량이 1350달러에 낙찰됐다.

타이완은 심각한 재고부족 사태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매기업들은 CFR 톤당 1300달러 이상을 지불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주초에는 CFR 톤당 1300달러가 받아들여졌으나 FOB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타이완 가격도 CFR Taiwan 톤당 최소 1400달러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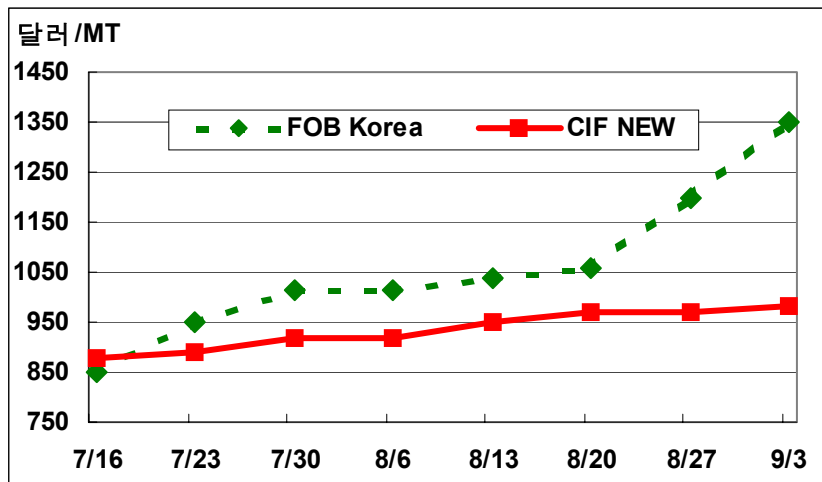
아시아 에틸렌 시장은 주초 일본 태풍의 영향으로 가세를 나타냈는데, Mitsubishi Chemical은 태풍으로 인해 약 10일 동안 크래커 가동을 중단했으며 Showa Denko 역시 하루 동안 크래커 가동을 중단했다. 또한 Sanyo Petchem은 플랜트 가동률을 85%로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아는 주초 CFR 톤당 1270달러에 거래가 성사됐으나 이후 CFR Indonesia 톤당 1300달러에 거래소식이 전해졌다.

FOB SE Asia 오퍼가 톤당 1330달러에 전해지면서 FOB Malaysia Cargo도 톤당 약 1300달러에 판매됐다.

에틸렌 가격은 MEG 가격이 CFR China 톤당 1200달러 이상을 기록하면서 강세를 나타냄에 따라 지속적인 폭등세를 유지하고 있다.

Ethylene 가격추이



한편, 유럽의 에틸렌 가격은 9월3일 CIF NEW 톤당 975-990달러로 13달러 상승했으며 3/4분기 계약가격은 FD NEW 톤당 635유로를 형성했다.

<화학저널 2004/09/06>